

광주·전남 입영대상자 내년부터 사단으로 입대

〈매년 3000여명〉

의정부 306 보충대 연내 폐지
논산훈련소 등은 그대로 유지
복무부대 노출돼 군당국 고심

지난 55년간 수백만명의 최전방부대원을 배출했던 306 보충대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지게 됐다. 지금껏 306 보충대를 거쳐 갔던 광주·전남 입영 장정들만 출집야 40만 명이 넘는다. 당장 내년부터 3000명에 달하는 신병들은 보충대가 아닌, 사단 신병교육대로 바로 입영하게 됐다. 1959년 창설이후 가족들과 눈물로 이별했던 306보충대 입소 풍경은 추억으로 남게 됐다. 2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부터 306보충대가 폐지돼 광주·전남 입영장병 3000여 명은 사단 신병교육대로 가기 전 306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와 강원도 등 육군 3군사령부 예하 15개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게 된다. 국방부는 올 연말까지만 육군 306 보충대(경기도 의정부)를 운영키로 하고 이후로는 사단 신병교육대로 직접 입영하는 ‘직접 입영 제도’로 진행키로 했다. 보충대는 전방 부대로 가는 신병들이 3박 4일 동안 머물며 복무 부대를 배치받고 전투복 등 개인 물품을 지급받는 곳이다. 102보충대는 동부전선을 지키는 1군사령부, 306보충대는 중·서부전선을 책임지는 3군사령부 직속 부대로, 보충대를 나오면 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대부분 최전방에 배치된다.

다만, 강원도 춘천에 있는 육군 102 보충대와 논산훈련소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 한 해 육군 306 보충대를 거쳐 최전방 부대로 입영하는 광주·전남 지역 장병을 3150명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306 보충대를 거치는 마지막 입영 장정인 셈이다. 102 보충대로는 2710명, 나머지 1만700명은 논산 훈련소 등을 거쳐 입대한다. 지난해도 광주·전남 육군 입영 장병(1만4820명)은 ▲306 보충대(2490명) ▲102 보충대(2490명) ▲육군 훈련소 등(9840명)을 거쳐 복무 부대로 옮겨갔다. 이른바 ‘영장’으로 불리는 군 입영통지서도 기존 ‘306 보충대’ 대신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 장소가 표기된

다. 아들을 따라 보충대까지 갔던 가족들은 앞으로는 최전방 부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할 형편이다. 바뀐 제도로 인해 ‘전방사단 기피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입영통지서에 입영 부대가 노출되면서 입영 연기가 속출하는가 하면, 각 부대의 적성(주특기)별 적정 인원 충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신병 직접입영 제도는 합동참모본부의 부대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전·평시 임무 수행 우선순위가 낮은 부대와 전투 효율성이 낮은 부대 등을 해체하고 통합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306 보충대가 폐지되면서 2015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입영 방식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가을비 우산속에... 제16호 태풍 풍영이 소멸되고 남긴 비가 전국적으로 내린 2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 단풍이 물든 나무 사이로 우산을 쓴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임금 떼인 고려인 자살 ‘슬픈 코리안드림’

광주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급증...악덕사업주 단속은 미흡

20대 고려인이 꿈꾸던 ‘코리안 드림’은 5개월 만에 산산조각났다. Y씨는 지난 4월 24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모국을 찾았다. Y씨는 광주에 도착한 직후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평동공단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소개받았다. 일자리를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Y씨는 특례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받은 뒤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만 이를 어진 채 일을 시작했다. Y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

시달리며 250만 원의 급여를 떼인 것은 물론 해고까지 당했다. Y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았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Y씨는 24일 오전 8시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A아파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노동청은 인

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광주지역에서 일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759명으로 체불액은 18억 980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112명·금액 2억 4700만 원) ▲2012년(121명· 2억4900만 원) ▲2013년(271명· 7억3000만 원) ▲올해(255명·6억7200만 원) 등이다. 하지만 올해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255명 중 117명(45.9%)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현장 단속은 먼 나라 얘기다. 광주시 관할 사업장은 8만2818개(2012년 기준)로 올해 상반기 광주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정인 55명 중 46명만이 근무하는 등 감독관 1명당 1800곳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감독관이 현장 감독을 나간 사업장은 전체의 1.2%에 수준에 불과하는 966곳이다. 여기에 무려 91.3%에 해당하는 882곳에서 317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현장감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세월호 퇴선명령 제대로 내렸다면 6분만에 승객 전원 탈출 가능했다”

‘탈출 시뮬레이션 보고서’ 쟁점
“공소 사실 꺾 맞추기냐” 지적도

세월호 침몰 참사 때 선원들의 구조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불과 6분 만에 476명 전원이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검찰이 선원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로 제출한 의도가 엿보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빈약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열) 심리로 열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는 검찰이 제출한 ‘탈출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공개된 ‘세월호 침몰 시 기상 대피 시나리오 기반의 승선원 대피 경로 및 탈출 소요 시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1단 -사고 초기인 오전 8시 50분(당시 세월호 기온기 30도 추정) ▲2단 - 인근에 있던 롤라에이츠호가 탈출을 권고했던 오전 9시 24분(52.2도 추정) ▲3단 - 조타실에 있던 선원들이 탈출, 목포해경 123정에 구조되던 오전 9시 45분(59.1도 추정) 등으로 나뉘어 퇴선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로만 보면 한 눈에 선원의 무책임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장, 1안에서 퇴선 조치가 이뤄졌다면 5분 5초

만에 승객 476명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온기가 50도가 넘는 2안에서도 9분 28초, 3안에서는 불과 6분 17초만에 승선원 전원이 탈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형주 가천대 건축공학과의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 “선원들의 대피 안내·유도를 전제로 질서정연하게 탈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라며 “모든 승선원이 동시에 대피를 시작해 뒷사람이 앞사람을 추월하지 못하고 대피 중 다친 사람이 없는 조건이 일괄적으로 적용됐다”고 했다. 하지만 기온기가 50도가 넘어가는 2·3안 탈출 시뮬레이션 결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료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른바 전형적 ‘책상머리’ 자료라는 주장이 변호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3안은 특히 목포해경 123정이 도착한 시각(오전 9시 35분께)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해경이 진입, 퇴선 조치를 시도했다면 승객이 모두 탈출할 수 있었다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뒤따랐다.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명한 생존 학생, 일반인 승객, 승무원 등의 ‘기울어진 선체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손톱이 부러지기도 했다’, ‘올라가는 것 포기하고 죽을 각오를 했다’, ‘위에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못 올라갔다’, ‘냉장고 등 짐기가 쏟아졌다’는 등 급박한 상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론을 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박희태 전 의장 성추행 피해여성과 합의...수사는 계속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피해 여성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여·23)씨가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박 전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관련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10일 이내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출석요구 시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담 캐디 A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차 경적 제지하자 순찰차에 올라타 난동 피운 취객



○...자신의 화물차에서 경적 울리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순찰차에 올라타 난동을 피운 40대 취객이 경찰서행. ○-2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2)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광주시 동구 계림동 K모텔 인근 갓길에서 동부경

찰 금남지구대 소속 순찰차에 올라탄 뒤 최초(50) 경위의 제복을 벗기려 하는 등 30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김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1t 화물차에 탄 뒤 두 발을 경음기에 올려 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경찰에서 “내 화물차로 경적 울린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래 호통. /백희준기자 bhj@

경매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임

- 1억~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아파트형 콘도 / 별장 / 펜션 분양

주인 직매, 010-3180-8900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아파트 개념
전기/수도 개별, 노래방/식당/세미나실 사용 가능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별도

★산속의 궁전
화개장터, 생계사, 노고단 근접거리

★총 55세대 (18/28/56평) 중 2세대
28평 - 8400만원(용자 2300만원 포함)
56평 - 1억6800만원(용자 4600만원 포함)

오피스텔 "매매"

■ 29평 - 12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주거용
매매가 - 7200만원

■ 53평 - 13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음, 룸 2개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가 - 1억5천500만원

■ 77평 - 20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음, 최상층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 2억5천5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